

‘이보 없는 연변팀’ 운남옥곤팀에 1:5 참패

—‘창과 방패’ 대결서 경기 통제권 잃으며 와르르—



5월 12일 저녁 7시 30분에 운남성 옥계시 옥계고원체육운동중심경기장에서 시작된 2024 중국축구 갑급리그 제10라운드 경기에서 연변룡정팀(이하 ‘연변팀’)은 운남옥곤팀에 전반전 1골, 후반전 4골을 허락하면서 1:5 참패를 당했다.

이날 경기에 연변팀은 12번 리아남을 문지기로 내세우고 5번 리달, 15번 서계조, 3번 왕봉으로 수비선을 지키게 했다. 20번 김태연, 31번 천창걸을 수비형 미드필더로 배치하고 24번 리호걸, 7번 한광휘, 30번 왕박호, 17번 리세빈을 공격형 미드필더로 중원을 구성했다. 9번 로난을 원톱으로 한 4-2-3-1 전형을 구축했다. 운남옥곤팀은 1번 요호양을 문지기로 하고 33번 조해정, 18번 이등, 5번 강적흥, 22번 디리무라티로 수비선을 이루었다. 9번 라뿌야드, 10번 알렉산드로, 17번 류일로 중원을 지키고 27번 한자룡, 30번 무세쿠에, 7번 라경으로 공격선을 구축한 4-3-3 전형으로 맞섰다. 선발 출전 선수들의 평균년령은 연변팀이 28.0세였고 운남옥곤팀이 29.5세였다.

운남옥곤팀은 홈장 우세를 리용하여 연변팀을 전방위로 압박하는 선



제 공격의 전술을 구사했다. 경기 초반 한자룡과 라경, 무세쿠에를 비롯한 운남옥곤팀의 공격수들이 룬번으로 연변팀 안방을 노렸고 수차례의 슈트를 날리면서 리아남의 신경을 자극했다면 연변팀은 수비력을 최대한 동원하여 슈트 기회를 막는 한편 밀착 대인방어로 한차례 또 한차례의 위기를 모면했다.

하지만 23분경의 프리킥을 리용하여 한자룡이 리호걸을 따돌리고 자신만의 독특한 감아차기 먼거리슛으로

연변팀의 골문을 가르며 1:0으로 앞서나갔다.

선제골을 내준 연변팀이 반격에 나섰다. 중원에서 끊기거나 패스가 매끄럽지 못한 등 원인으로 30분이 지날 때까지 위협적이라고 할 만한 공격을 조직하지 못했다. 35분경 연변팀은 왕성패로 리달을 교체하면서 변화를 꾀하였으나 역시 그렇다 할 기회를 만들지 못했다. 전반전 추가 시간에 연변팀의 첫 슈트 나왔지만 운남옥곤팀의 쾌속반격이 더 위협했다.

공격 방면에서 12차 슈팅에 유효 슈팅이 4회인 운남옥곤팀이 슈팅 2회인 연변팀을 멀리 앞섰고 운남옥곤팀이 1:0으로 앞선 채 전반전이 결속되었다.

선수 교체 없이 시작된 후반전에 진입해 2분도 안되어 운남옥곤팀의 10번 알렉산드로가 먼거리슛으로 리아남의 십자관을 뚫으면서 2:0으로 앞서갔다. 49분경 연변팀의 3번 왕봉이 35여미터 밖에서 먼거리슛을 날렸는데 상대의 골문안에 빨려들어갔다.

2:1로 따라붙은 연변팀. 그러나 51분경, 한자룡의 패스를 이어받은 무세쿠에가 가벼운 들여차기로 리아남이 지키는 골문을 뚫으면서 경기는 3:1로 변했다.

공방 절주가 갑자기 빨라진 후반전 경기에서 쌍방 선수들의 체력 소모가 비교적 컸다. 62분경 연변팀은 한광휘와 리호걸을 내리고 현지건과 왕민한을 교체 출전시키면서 추격의 고삐를 단단히 하였다.

그러나 경험과 실력상 차이가 너무 컸다. 74분경 운남옥곤팀 무세쿠에가 코너킥 기회를 빌어 헤딩슛으로 다시 한번 연변팀의 골문을 갈랐다. 본인의 시즌 8호 골이다. 4:1로 크게 앞서간 운남옥곤팀.

연변팀은 81분경, 린대준과 허문광으로 리세빈과 김태연을 교체 출전시켰고 운남옥곤팀은 공신들인 한자룡과 무세쿠에를 내리면서 경기는 마지막 단계에 진입했다.

85분경, 연변팀 수비선에서 다시 한번 패스 실수가 나오면서 상대에 한골을 내주었다. 경기 성적은 5:1. 연변팀 선수들의 자신심이 타격을 받는 순간이었다.

교체 출전한 선수들의 경기 경험 부족과 경기 변화를 읽는 속도가 느리고 유효한 공격을 조직 못하는 경기력 미숙 등이 나머지 시간내에 드러나면서 축구팬들은 중원에서 뽀를 통제하면서 유효한 공격을 조직하던 이보를 그리워해야 했다.

한편 연변팀은 15일 오후 두시에 상해에서 중국협회컵 제3라운드 경기를 치르게 되며 10일간 정돈한 후 25일 15시에 홈장에서 강서려산을 만나 제11라운드 경기를 펼친다.

/ 김태국기자

〔특집 관전평〕

“이게 실력인가?”... 연변팀 참패에 설왕설래



‘창과 방패의 대결’이 될 것이라는 예상이 컸다. 운남 원정에 여러 변수가 존재할 것이라는 전망도 많았다. 그런데 누구도 예상치 못한 건 1대5라는 참담한 결과였다. 마지막까지 무너지던 연변팀의 모습은 두 팀의 객관적 전력차를 인정하면서도 주관적 생각으로는 받아들이기 힘들 수밖에 없다.

연변룡정팀(이하 ‘연변팀’)이 중국축구 갑급리그 제10라운드에서 만난 운남옥곤팀은 명실상부한 강팀이다. 9라운드까지 6승 2무 1패 승점 20점으로 리그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목전 홈장무패의 기록을 쓰는 중이다. 슈퍼리그 진출을 노리는 운남옥곤팀의 공격수 무세쿠에(30번)는 또 현 갑급리그 득점왕에 올라있다.

이렇듯 운남옥곤팀의 예리한 창에 맞서 연변팀은 선발 진영에 두루 변화를 주는 등 단단한 방패를 꺼냈다. 확실히 전반전 20여분까지 연변팀은 운남옥곤팀의 파상공세를 잘 막아내는 한편, 역습을 시도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24분에 나온 선제골로 전반전을 1대0으로 내졌지만, 전반전 내내 그렇다 할 공격 기회를 만들어내지 못했기

만서도 연변팀은 후반전을 남겨두고 희망도 여전히 남아있었다.

그런데 희망을 건 후반전에 내리네폴이나 허락하며 와르르 무너질 줄이야... 중원이 통제를 잃으면서

연변팀은 공격도 안되고 수비도 안되는, 그야말로 진퇴양난의 수렁에 빠졌다. 이날 이보가 운남 원정길에 오르지 않으면서 결정했다. ‘이보 없는 연변팀’이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대목이다.

경기후 기술통계표를 살펴보면 연변팀은 슈팅 9회(유효 슈팅 4회)를 기록한 반면, 상대팀은 90분 내내 슈팅을 22회(유효 슈팅 9회)나 몰아붙였다. 멀티골을 터뜨리고 82분에 일찌감치 교체로 나간 상대팀 공격수 무세쿠에의 돌진적인 움직임에 “부럽다!”는 말을 여러번 되뇌이게 했다. 5실점 앞에 왕봉의 초장거리 슈트골도 빛을 잃었다.

“5골 실점이란 참패를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그래도 우리는 중위권 팀이란 걸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 “선수들이 한 경기로 의기소침해있지 말고 다음 홈경기를 잘 준비하기 바란다.” 등 응원의 목소리가 있는 한편 “지더라도 연변팀다운 축구를 보여달라.”, “실력차를 인정하지만 연변팀의 정신력을 보여달라!”는 등 혼평도 쏟아진다.

다음 경기(5월 25일)에 연변팀은 다시 홈장으로 돌아온다. 감독진과 선수단이 어떤 결단을 내리고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 지켜보는 눈이 많다.

/ 김기해기자

연변체육운동학교축구구락부 팀 구성 완료... 7월 2일 중국챔피언스리그 출전

5월 11일, 2024 중국축구협회 회원협회 챔피언스리그(冠军联赛) 서막이 오른 가운데 전국 각지에서 온 71개 구락부 축구팀이 경기에 참가한다. 연변체육운동학교축구구락부는 7월 2일에 룽닝성 영구경기구로 가서 대구역전(大区赛)에 참가, 중국축구협회 회원협회 챔피언스리그 출전 자격의 시작을 댈다.

중국축구협회 회원협회 챔피언스리그는 전국 아마추어 축구의 최고 수준 경기이다. 2024년 대회는 예선전과 결승전으로 나뉘어 열린다. 그중 예선단계에서 우승한 팀은 중국축구협회 회원협회 챔피언스리그에 참가



할 자격을 획득한다. 결승단계는 대구역전과 결승전으로 나뉜다. 대구역

전은 전국적으로 8개 경기구를 두었는데 추첨 결과에 따라 연변체육운동

학교축구구락부는 룽닝성 영구경기구의 경기에 참가하게 된다.

현재 연변체육운동학교축구구락부는 이미 팀 구성을 완료했다. 감독진 7명, 선수가 29명인데 지금 한창 긴장한 준비 훈련을 하고 있다.

만약 영구경기구의 상위 2위 안에 들면 전국 결승전에 진출하게 된다. 전국 결승전은 9월부터 11월 사이에 진행되는데 전국 16개 팀이 참가한다.

총결승전 상위 4개 팀은 2025 시즌 중국 을급리그 참가 자격을 얻는다.

/ 김일보

장춘아태 원정패, ‘전통강호’의 벽 역시 높았다



쉽지 않은 상대였다. 장춘아태가 ‘전통강호’의 벽을 넘지 못하면서 원정 2연승에 실패했다.

5월 10일 오후 20시, 중국 슈퍼리그 제11라운드 경기가 펼쳐진 가운데 사후 감독이 이끄는 장춘아태팀은 원정에서 상해해항팀에 5대2로 패했다. 이로써 장춘팀은 승점 8점으로 다시 리그 최하위로 내려앉았다.

최근 두 경기에서 상해팀은 뛰어난 공격력을 선보이며 도합 11골을 퍼부었다. 이날 경기에서 상해팀의 경기력은 여전히 강력했다. 전반전 10분경과 후반전 72분경에 상해팀 용병 구스타보가 헤딩으로 두골을 넣었고 26분경과 49분경에 국가대표 간판공격수 무뢰도 혼자서 두골을 성공시켰으며 44분경에 용병 바

르가스도 골을 기록했다. 한편, 32분과 58분에 손국량과 벨리치가 장춘팀을 위해 두골을 만회했다.

이날 경기후 사후 감독은 “오늘 투입된 젊은 선수들은 좋은 경기를 펼쳤다. 그러나 득점 능력에서 상대팀과 차이가 있었다. 우리는 전후반 서너번의 기회가 있어야 한골을 넣을 수 있는 반면 상대는 한두번의 찬스로 득점에 성공했다. 전반전에 두골을 먹은 것이 우리의 사기에 영향을 주었고 후반전에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좋은 경기를 펼쳤다.”고 말했다.

한편, 돌아오는 5월 17일 20시에 장춘아태팀은 북경국안팀을 홈으로 불러들여 중국 슈퍼리그 제12라운드 경기를 펼치게 된다.

/ 글 오건기자

/ 사진 장춘아태축구구락부

희소식! 연변 선수, 2024년 전국유술 U 시리즈선수권서 1금 2은 1동



길림성체육국에서 룽해한 데 따르면 5월 2일부터 3일까지 국가체육총국 력기레슬링유도운동관리센터와 중국유술운동발전위원회가 주최한 2024년 전국유술 U 시리즈 선수권대회(아미산역)가 사천성 락산시에서 개최되었는데 전국 36개 팀, 350여명의 선수들이 참가했다.

연변조선족자치주는 연길시유술협회 선수 7명을 선발하여 시합에 참가시켰다. 치열한 접전 끝에 연변

대표팀은 1금 2은 1동의 성적을 거두었다.

이번 대회에서 연변대표팀의 박수지는 U-12 여자 갑조 -48키로그램급에서 금메달을, 김준혁과 정연수는 각각 U-12 남자 갑조 +54키로그램급, U-9 여자 을조 -40키로그램급에서 은메달을, 리상훈은 U-12 남자 을조 -42키로그램급에서 동메달을 따냈다.

연길유술협회는 또 체육도덕기풍상을 수상했다. / 인민넷-조문판